

경제 · 산업 교류 · 몽골 유학생 취업 지원 협력

전주상공회의소-몽골 달란자드가드市, 업무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가 몽골 달란자드가드市와 손잡고 양 지역 간 경제·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7일 몽골 달란자드가드市에서 달란자드가드市와 경제·산업 교류 확대와 몽골 유학생의 안정적인 고용·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몽골 달란자드가드市에서 달란자드가드市와 경제·산업 교류 확대와 몽골 유학생의 안정적인 고용·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태 회장과 김상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주상공회의소 임직원과 (주)에스에쓰컴퍼니 과성운 대표이사,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과 김혜미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몽골 측에서는 척트 데네더르지 달란자드가드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2월 몽골 달란자드가드市 관계자들이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 추진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몽골 방문 일정 중 남고비주 주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몽골 지역

산업 현황과 향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지역 대학

을 졸업한 몽골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비롯해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통합 협력 모델 구축, 몽골과 전북지역 산업 전반의 교류 확대, 산업·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몽골 유학생이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무 적응과 장기 근속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몽골 주요 산업과 전북 산업을 연계한 인력 양성사업과 산업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사절단 교류와 산업 시찰, 간담회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 유학생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서 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회원기업의 인력 수요와 몽골 유학생을 연결해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만들어가고, 양 지역 간 산업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구본준 제42대 전북지방우정청장 취임

'국민신뢰·지역상생·행복한 일터로 더 나은 전북우정 만들 것'



제42대 전북지방우정청장에 구본준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6일 구본준 신임 청장이 공식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과 간소하게 인사를 나누며 현안을 점검하는 등 실용적인 행보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구 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전북우정과 함께 뛰겠다"

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북우정의 경영 방향으로 △국민 신뢰 확보 △지역사회와의 상생 △안전하고 행복한 조지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구 청장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중심의 경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본준 신임 청장은 2008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방송정보진흥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 관료다.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오상근기자

과학적 분석으로 농업환경보전활동 효과 한눈에

농촌진흥청, 평가시스템 개발

농업인이 실천하는 환경보전활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환경보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활동은 토양과 수질, 생태계 등을 보호·개선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현재 다양한 개인 및 공동 활동이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농업·농

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로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3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사업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환경보전활동은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실제로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평가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에 포함된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토양 보전, 수질 오염 저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수치와 지표로 제시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농업인과 참여 마을은 자신들이 실천한 활동별 환경 개선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논과 밭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실천하면 환경 개선에 더 도움이 되는지 사전에 살펴보고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 담당자 역시 이 시스템을 통해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농업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농업인의 환경보전 노력이 객관적

인 지표로 제시되면서 농업환경보전활동의 가치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과 연계해 분석 정확도와 현장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농업환경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활용 지침 마련과 홍보를 통해 현장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찬원 농촌진흥청 토양물환경과 과장은 "농업환경보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미리 살펴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 현장과 과학을 잇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출범

농촌진흥청이 반려동물 사료 영양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5일 본원 강당에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농촌진흥청이 2024년 국내 처음으로 설정한 개·고양이 사료에 대한 국가 영양기준이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지속적으로 심의·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전문가 협의기구다. 사료 영양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관련 기준이 산업과 학술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

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영양표준 1판(2024년)에 수록된 권장 영양기준을 재평가하고, 국내 실증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과학적 개선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영양표준 2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영양표준 1판에 포함되지 못했던 질환을 앓는 반려동물 위한 '질환관리사료' 기준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사료 유통 현황과 다빈도 질환, 임상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질환 유형별 반려동물 사료 표준 제조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상근기자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투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1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지원 등 공급망 단위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경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과 실시설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모집은 일반 트랙과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두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율은 일반 트랙이 50%, 고도화 트랙이 70% 이내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 대배출 업종 기업과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한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 혜택을 새롭게 도입하고, 유관기관 사업 연계와 원가계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설비투

자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한층 줄였다.

지원 대상 설비는 △에너지 절감형(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등) △공정 최적화형(AI 기반 제어 시스템 등) △배출 진단형(모니터링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형(폐기물 열분해 시설 등)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기자

전북은행, 13~14일 익산미륵사지휴게소서 이동점포 '쓱버스' 운영

전북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동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설 연휴를 맞아 이동점포 '쓱버스'를 운영하고, 귀성길에 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권 교환과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미륵사지휴게소(순천 방향)에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비롯해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